

불완전한 세상과 공존하기 위하여

- 근본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. 보는 사람의 마음
가짐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고,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
지기 때문이다.
- 존재는 곧 바다다. 우리는 존재 자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
바다로 들어가 바다의 광활함과 심오함을 체험하고 스스로 바다의 일
부가 되는 것이다.

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불만 때문에
환경을 바꾸고 곁에 있는 사람을 떠나는가?
그런데 바꾸고 떠나면 번뇌가 사라지는가?
불완전한 세상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?